



말레이시아 소수민족 이라는족이 사는 람파이안 마을 해변에는 뛰어노는 아이들을 언젠 만날 수 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이곳에 사는 원주민과 이주민은 사용하는 언어도 믿는 종교도 다르지만 차이를 포용하며 평화롭게 공존한다.

다른 민족·다른 종교, 강을 품은 바다처럼 어울린다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64〉

8부 말레이시아편

8 차이를 포용하는 이라는족

코타키나발루=글 양세열·사진 김진수 기자

소수민족 이라는족·말레이어 쓰는 이주민 함께 생활

“전통에 대한 믿음 있어 다른 문화도 너그럽게 포용”

동중국해로 흘러가는 가왕가왕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람파이안 마을. 이곳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소수민족인 이라는족이 터를 잡고 살고 있다. ‘바다’마을이란 이름처럼 바다와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이곳은 민물 게와 생선 등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잡힌다. 람파이안 마을은 매일 새벽 5시에 생선 시장이 열린다. 마을을 거닐다 보면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팔기 위해 온 이주민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고유한 언어를 쓰는 이라는 원주민과 말레이어를 쓰는 이주민 사이 언어는 다르지만 서로 서스를 없이 지내는 모습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람파이안 마을에는 50여 가구가 사는데 주민 대

부분이 이슬람을 믿는다.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종교적인 이유로 집 근처는 물론 차도를 자유롭게 거니는 소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방목하는 소를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않도록 묶어놔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이에게 ‘남의 소를 왜 훔쳐가느냐?’고 되물으며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주민들. 손님을 대하는 인심도 후덕했다.

이라는족 전통에 따라 의복을 생산하며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반디안 술라이만(Pandian Sulaiman 여·63)씨는 전통문화와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놓기에 앞서 푸짐한 전통 음식으로 손님을 맞았다. 직접 잡은 재료로 만든 생선구이와 노란색 코코넛 소스를 듬뿍 얹은 참치 샐러드, 갓 구운

빵과 바나나 튀김까지 이색적이지만 푸짐한 인심을 가득 담은 요리를 보며 한 그릇을 금방 비웠다. 잠시 후 들어간 방에는 붉은색, 초록색, 노란색, 검은색까지 방 안을 가득 메운 원색 직물이 방문객의 눈을 사로 잡았다. 이들은 생활 속에서 전통을 체계적으로 지키고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공무원과 회사원, 상인과 여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들이 전통 직물 생산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다. 덕분에 전통 직물 제작경력이 수십 년 이상인 여성이 적지 않다. 이들이 만든 화려한 전통 직물은 각지로 팔려나간다. 또한 보유한 기술을 다음 세대에 알리고 보급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었다.

반디안 씨의 손녀이자 코타키나발루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티카(Atikah 여·20)씨, 그녀는 고향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집에 살지만 한달에 두 번 이상 이곳에 와서 직물 짜는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하집을 쓴 채 셀카봉으로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브이를 그리는 그녀는 한국 문화에도 무척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가진 포용력이 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집에 감춰진 작은 얼굴에 당찬 표정을 지닌 그녀는 전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다른 민족과 종교는 물론 한국 드라마와 음악까지 서로 다른 문화를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문화, 즉 전통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람파이안 마을에는 대부분 이슬람을 믿는 이라는족이 살지만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어요. 자연스레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차이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쉽게 받아들여지게 된 거 같아요. 자신이 믿는 종교가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이 믿는 신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의식주 모두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이런 유연함이 전통을 지키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아시아 숨은 이야기 발굴·콘텐츠 만드는
亞문화전당 역할 아시아인 모두에게 중요”

사바 박물관 큐레이터 주디스씨

“이반족, 비다유족 등 점차 사라져가는 말레이시아 소수민족의 전통 의복을 보전하고 연구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한 번 사라진 전통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학계나 정부 모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시아 소수민족 전통을 발굴하고 연구·보전하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역할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인

모두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 박물관 큐레이터 주디스(Judeth 여·53·사진)씨는 아시아 소수민족을 연구하는 한국 연구진을 만나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녀는 종교도 문화도 다르지만 말레이시아 소수민족을 연구하기 위해 광주에서 온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가 가진 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헬리캠 같은 첨단 장비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누비며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기록하고 있

는 한국 연구진에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5일간 연구팀과 동행하며 한국인의 눈으로 말레이시아 소수민족 의복과 생활양식 등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에게도 큰 자산이었음을 덧붙였다.

“이반족, 룡구스족 등 말레이시아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 의복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았습다. 현대인 생활 속에도 바주 크바야 등 전통 의복을 많이 입는다고 생각하기에 이에 대한 연구는 비중 있게 다루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반인의 눈으로 말레이시아 소수민족 삶을 들여다보면 서 상세하게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값싼 실이 수입되면서 전통 직조 방식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연구진과 취재에 앞서 다양한 소수

민족을 만나 의식주에 관한 사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소수민족들이 서로 다른 의복과 의례 등 고유한 모습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언뜻 보면 유사하지만 직물 소재와 그 속에 담긴 문양 등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이 이러한 주제를 연구한 적은 있지만 기관이나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아시아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해 콘텐츠로 만들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러 종교와 문화가 서로 호흡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아시아지만 이를 발굴해 문서나 영상으로 남기려는 시도는 아직 미약합니다. 지구촌은 아시아와 아시아인,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의복을 주제로 아시아 연구에 첫 발을 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란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10층 스카이라이프
웰빙 샵샵 뷔페
부담없는 가격·풍부한 셀러드바
웰빙의 야채와 쇠고기 샵샵

주중 12,000원/주말 15,000원
어린이 7,000원 부가세 포함

INVITATION
2015년 봄 웨딩 할인
웨딩 큰잔치 메뉴 **스테이크(코스), 뷔페**

무료제공 특전 : 객실 2실, 꽃길, 펌백실
일반웨딩 200명 대형웨딩 1,000명 수용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